



여성 주택소유자 증가와 주택연금

오승연 연구위원

주택소유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특히 주택소유자가 가장 많은 40~50대 연령에서 여성 소유자 증가 규모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여성 주택소유자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1인 여성가구의 주택소유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음.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족구성을 보면 부부 61.2%, 독신녀 32.2%, 독신남 6.6%로 1인 가구 중 여성 가입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자녀 없는 독신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향후 주택연금의 주요 수요층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발간된 『주택소유통계』¹⁾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중 남성의 비율(56.9%)이 여성(43.1%)보다 높으나, 여성 소유자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음

- 여성 소유자 비중은 통계조사를 시작한 2012년 41.4%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전체 인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이 여성 인구 비중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대비 2015년 여성의 인구는 0.02%p 증가한 반면,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0.7%p 증가했음

■ 특히 주택소유자 비중이 가장 높은 40~50대 연령에서 여성 소유자 증가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2014년 대비 2015년 주택소유자는 39만 4천 명 증가하였는데, 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였음
- 주택소유자 증감 인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전체 주택소유자 증

1) 주택소유통계는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2012년 11월 1일 기준)부터 개인별 주택 소유현황에 대해 매년 작성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작성 범위를 가구 단위까지 확장하였음

감인원 7만 5천 명 가운데 6만 9천 명인 92%가 여성이었으며, 40대는 80%로 나타남

- 주택 소유자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60대였음

〈표 1〉 성별, 연령별 주택 소유자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구성비 (여성)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전체	남	여	
전체	12,650	7,282	5,368	13,045	7,421	5,624	394	139	255	64.7
20대 이하	240	134	106	275	152	123	35	18	17	48.6
30대	1,841	1,074	768	1,856	1,089	767	15	15	-1	0.0
40대	3,232	1,801	1,431	3,281	1,811	1,469	49	10	39	79.6
50대	3,302	1,864	1,438	3,377	1,870	1,507	75	5	69	92.0
60대	2,090	1,218	872	2,244	1,285	958	154	67	86	55.8
70대	1,304	749	555	1,337	759	578	33	10	23	69.7
80대 이상	326	174	152	367	193	173	41	19	22	53.7
사망자*	316	268	48	309	260	48	-7	-7	0	0.0

주: 개인 소유자에는 통계작성 시점 소유권이 유지(명의 미이전)되어 있는 사망자도 포함되며, 금년부터 연령별 현황에서 사망자를 별도 구분('12~'14년 자료 KOSIS 소급 수정). 구성비는 전체 증감 인원 중 여성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2016),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5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여성 주택소유자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1인 여성가구의 주택소유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음

-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별, 성별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50~69세 남성의 자가비율은 17%인 반면, 여성의 자가비율은 35%로 나타남²⁾
 - 1인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50세 미만과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자가비율 차이는 크지 않으나, 50~69세 연령대에서 여성의 자가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그 격차가 큰 편임

■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의 주된 수요층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짐

- 청·장년층의 1인 가구 증가는 만혼과 비혼이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중·노년층의 1인 가구는 이혼과 사별로 인한 여성 독거노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임

2)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슈리포트(2016. 12. 23), “1인 가구 전성시대, 주택·주택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족구성을 보면 부부 61.2%, 독신녀 32.2%, 독신남 6.6%로 1인 가구 중 여성 가입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음³⁾
- 자녀 없는 독신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향후 주택연금의 주요 수요층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자녀 없는 1인 노인 가구는 상속유인이 없기 때문에 주택연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임
 - 의료요양시설이나 돌봄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층 1인 가구 특히 여성이 미래 노후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자산 축적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kiri

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7. 7. 25)